

유난히도 사건, 사고로 일룩진 올해엔 이례를 감추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시급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선제적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급년 불교계의 가장 큰 사건은 송광사 국사진영(보물 제 1043호) 도난을 들 수 있다. 지난 1월 일어난 성보 도난사

호르면서 불자와 국민들에게 사건자체마저도 잊혀지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한다.

불교방송 사장공석 9개월, 소위 2·24사태로 불려지는 불교방송문제는 두달후 당시 김태호사장의 사퇴로 확산됐다. 이후 방송국 내부문제, 조계종과의 불협화음으로 진통이 가

다. 그동안 불교계에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전통사찰보존법 및 그 시행령 △도시계획법 및 그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건축법 △승가법 등. 다행히 금년에는 종로에 면제등 지방세법과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는

지방승가대(강원)의 강력 반발로 추진이 멈춰졌으나 최근 지방승가대 설치령을 마련하고 군승가대는 학원으로 유도하는등 내년에는 이를 꼭 실현시킨다는 입장이다.

지난 가을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건교부가 경주도심으로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골짜장 허가가 나와 불교계와 지역주민이 골짜장건설을 저지하고 있으나 불씨를 남겨놓은 채 새해를 맞게됐다.

또한 전국신도회가 2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계종이 중앙신도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새해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남편저 생각하는 세상 가꾸자”

조계종 월하종정스님 신년법어

만류종생에게 불보살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심을 기원합니다.

기억속에서 지우고픈 고통만 남아 유난히 많았던 올해엔, 우리는 역사를 긴 안목으로 바로 보는 지혜로써 보편적 가치를 창출함에 동참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은 소중한 한해였습니다.

미망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질곡속에서 신음하는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로 다가가

료하며, 서로의 가슴속에 깊숙히 자리한 아픔과 편견, 독선과 배타는 참회의 정제아래 관용과 화합으로 감싸 안아야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반포를 양보하는 미덕으로 나의 복됨보다는 남의 불행한 바를 먼저 생각하는 자비로움이 가득한 세상, 살만한 세상을 가꾸어 나감에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 정진해야 하였습니다.

칼 끝의 꽃을 닮은 기련한



조계종 월하종정스님 신년법어

조계종 월하종정스님 신년법어

조계종 월하종정스님 신년법어

송광사 성보도난 BBS시장 공석 불교관계법 개정

해넘기는 교계현안 ‘수두룩’

건은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건초기 수사진은 전담반을 구성하고 총 2천5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으나 수사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불교계는 포스터 3천부를 배포하고 성보찾기 1백일기도를 벌였으나 아직 국사진영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간이

중되어 온 불교방송은 조계종과 진흥원이라는 두 거물 사이에 끼여 사장 공석상태까지 파급,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불교방송의 사장공석은 지방공회 허가등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안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해를 묵어온 불교관계 법령 개정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될

성과를 이룩했으나 아직 불교관계 약점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조계종 월하종정스님 신년법어

조계종 월하종정스님 신년법어

노선을 채택하는 어찌구무없는 일이 일어났다. 즉각 불교계와 문화재관계자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주도심을 위협하는 제3안을 내놓았다.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현재에도 정부는 고속철 경주통과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해인사국립공원에

이처럼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를 무마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과 관련해 불자들은 “현안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처해 새해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준엽 기자

‘생명나눔실천회’ 사단법인 새출발

이사장에 법장스님...장기기증등 활동 확대

지난 94년 임의단체로 설립된 생명나눔실천회를 필두로 생명나눔실천회본부가 마침내 정식 법인단체로 발족했다.

지난 10월 법인설립에 따른 발기인 총회를 가졌던 생명나눔실천회본부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생명나눔실천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생명나눔실천회’는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초대 이사장에, 태웅스님(불교텔레비전 사장)등 12명을 이사로 각각 선임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는 21일 장기기증 및 헌혈운동, 골수기증운동, 각막이식 수술비 지원 등 내년도 목적사업과 기금마련 특별행사, 회원 수련대회등 기타사업을 확정했다.

“제재풀려야 대화”

선학원 분원장 간담회

조계종 법안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우)가 주관한 선학원 분원장 초청간담회가 지난 18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40명의 분원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인사에서 “몇몇 선학원 이사들이 선학원을 분리시키려 하지 말고 종파와 사상이 같은 선학원은 조계종 산하로 들어와 한미가 한뜻으로 정진하자”고 말했다.

한편 분원장들은 조계종연 9 조3항으로 제재받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조계종이 아니라 선학을 해본 적 없기에 제재조치부터 풀고 대화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우스님은 “선학원을 창설했던 근본이념을 저버리는 선학원 분원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학원은 27일 이사회를 열어 선학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여론 확산

세계유산 인증계기...경실련·홍사단등 참여

불국사 석굴암등 3건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 통과와 반대 움직임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경실련(공동의장 설조·안동일)은 지난 8일 경부고속철도 11개 단체와 경실련등 한 국시민단체협의회 37개 단체의 동조를 얻어 고속철의 도심통과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들 단체들은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됨 시점에서 경주의 문화유적보존은 당연한 것”이라며 “건설교통부의 도심통과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그동안 주로 불교계에서만 나오던 반대 목소

리에 경실련, 홍사단, 기독교연립선운동,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운동연합등 일반시민단체가 함께 나섰다. 이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일신문사와 경북산업대 부설 도시환경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경주시민 2천2백74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가 경주통과를 찬성할 반면 도심통과노선에 대해서는 18%만이 찬성해 기존노선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답자의 73%는 건설회비 노선을 기본으로 한 문화재보호역세권 및 신도시개발, 환경피해 최소화, 비용절감 등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찬성하겠다고 답했으며, 81%가 새로 건설될 신도시의 지하로 고속철이 통과되기를 희망했다.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기영)는 지난 9일 엠베서더호텔에서 추진위원 및 가입단체 장 연설회를 갖고 10월부터 시작된 백지화운동의 중간평가를 하고 나섰다.

정하, 지선, 효림스님등 실천승가회 스님 6명은 지난 20일 대명호텔과 서울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방문, 검찰 관계자들에게 10·27법안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상무대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편 실천승가회는 검찰방문 전 조계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27법안과 상무대 비리 사건으로 실추된 불교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시 검찰고발 조치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 향후 운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추진위는 연말내 5백여명의 문화·학계 인사들을 추진위원으로 선임, 결의문을 작성·발표하고, 새해 초에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와 추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에서는 보혜스님을 계사로 1백47명(남 20명, 여 1백27명)의 청소년 불자들이 탄생했다. 한편 합동수료식에서는 중학 3년간 모방적인 불자청소년으로서 생활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가지기도 했다.

1백47명 오계수지

부산불교중학생련

부산불교중학생연합회(총재 보혜)는 지난 16일 법륜사에서 제11회 수계 및 합동수료식을 거행했다.

거향관, 정성, 청사, 연비의식 등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식 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마야유치원 19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임유사 부설 마야유치원(원장 해담)은 지난 19일 유치원 법당에서 유치원 개원 현판식 및 부처님 불생일잔치를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명스님(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 회장), 무공스님(동화사 주지)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해인사·조계사에서 축하법회

경(印經)시연과 정대불사 재현, 팔만대장경 주위 관람, 탑들이 등이 펼쳐졌다. 보경당이 열린 경축법회식은 해인사 법장 해암스님, 주지 지관스님, 김학경 경남도지사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해암스님은 “해인사 장경간갑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니 대대적인 부처님이 큰 빛을 발하고 팔만대장경이 말없이 법을 설한다”고 자축했다.

(합천=박병근 기자) 이날 경주 불국사는 석굴암에서 일산 불국사 조실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이원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 지정을 알리는 고품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불국사 대웅전에서 축하기념법회를 가졌다.

(경주=이윤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도 같은날 조계사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원주·태고종총무원장 해초스님·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진각종총무원장 락해스님·관음종총무원장 홍과스님·불교TV시장 태웅스님·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 송석규 동국대총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 월주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조상들의 비원이 서려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선현들의 경건한 삶을 느끼고 화와 자연, 세계가 하나

세계유산 등록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를 갖고 세계문화유산등록을 선포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 석굴암등 3건에 대해 등록인정서를 전달키 위해 내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장 베르트 폰 드로스트(인터뷰 7면)도 해인사 불국사 행사에 참석했다.

윤대통령 축전 김경삼대통령은 지

광주·전남 불자교사모임 창립

불교학생회의 활성화와 불자교사들의 신심고취를 목적으로 한 광주·전남 불자교사모임이 창립됐다.

광주·전남지역 불자교사 50여명은 지난 15일 금릉회관에서 창립법회를 열고 학생회 활성화, 정기법회 및 수련회를 통해 올바른 청소년 교육은 물론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김진택 교사(전남여상고)는 “학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10·27법안 상무대비리 진상규명 촉구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정하·지선)가 10·27법안 특별법 제정과 상무대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

구독신청: 737-0693

조계종 지방승가대 개편 가시화

운영규정 심의...교수 5인·학인 60인 이상 인가

조계종 지방승가대학(강원)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도법)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승가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했다.

설립과 인가, 설치기준, 교수, 운영, 학사운영, 발전 등 승가대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정해 놓고있는 이 안에 따르면 종단 또는 사찰이 설립한 승가대는 반드시 교육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승가대는 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수료자도 종단 기본교육기관 이수자로 인정 못받는다. 학인정원은 총 6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학장(강주) 학감을 포함해 5인 이상의 교수를 두어야 하며 교수는 1년에 한번 이상의 연구논문 발표하여야 한다. 각 승가대는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학장(강주)은 당해 승가대학의 학기별 학사일정, 개설과목, 학인수 등을 매

학기 개강후 15일 이내 교육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부칙에서는 이 규정이 공포되고부터 각 승가대는 6개월 이내 이 규정이 정한 요건과

기준에 맞춰 종단에 등록토록 했다.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이 규정은 교육원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계유산 등록 “축제 분위기”

세계유산 등록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띠고 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 석굴암등 3건에 대해 등록인정서를 전달키 위해 내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장 베르트 폰 드로스트(인터뷰 7면)도 해인사 불국사 행사에 참석했다.

윤대통령 축전 김경삼대통령은 지

31일 송년예술제

조계사 중·고학생회

조계사 중·고등학교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95 송년예술제’를 개최한다.

‘환경오염’을 주제로 마련되는 이번 예술제는 학생회의 각 부서별 발표와 직접 페유로 만든 무공해 비누 가두페포와 함께 대동놀이가 펼쳐진다.

“재생불량 빈혈 정우식군에 자비를”

피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우식군(12세)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정군은 지난 4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마지막 세포이식수술을 앞두고 있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불교방송은 결국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은뒤 지난 19일 전체 직원회의를 소집해 3개매체간 인적교류확대 등 4개항의 구체적인 합의 부분은 ‘협력할 수 없다’고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전문인력의 활용, 예산절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직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곳은 의외로 해당매체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실현불가능한 얘기’로 평가하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특히 불교방송 보도국은 협력에 관한 합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통합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강하게 반대여사를

3개매체 협력안 ‘슬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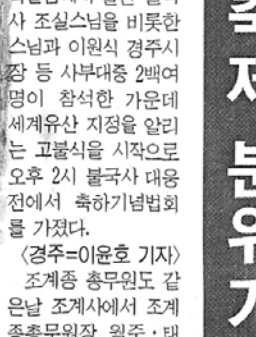
포명했다. 16일 오전 8시 BBS 뉴스광장을 통해서 5공 언론통합과 유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각계의 우려 목소리까지 내보냈을 정도다. 편성부 PD들도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후속조치를 준비하는등

3개매체 협력안 ‘슬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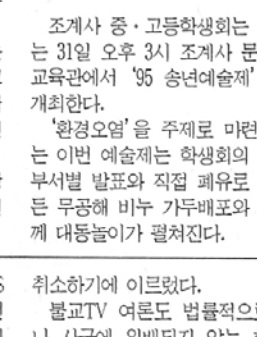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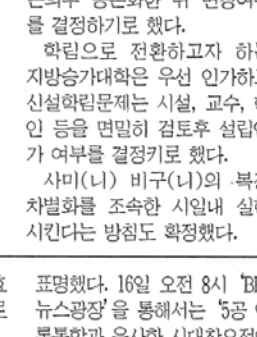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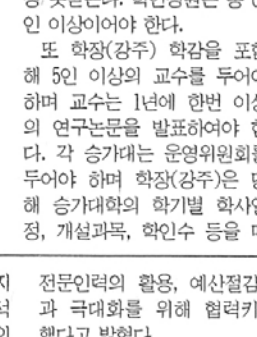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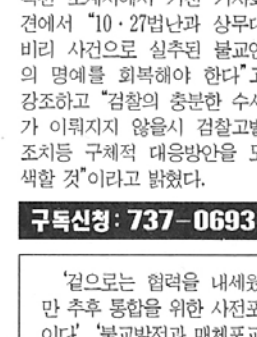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불교TV 여론도 법률적으로나 사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도에서 협력관계지 운영상 협력이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리공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점심식사하며 얘기하는 정우식군 제에어 아무생각없이 참석한 것 뿐”이라고 밝혀 3사협력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충분한 합의없이 발표됐음을 노골, 자칫 해프닝으로 비쳐질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9일 조계사에서 불교문화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재생불량 빈혈 정우식군에 자비를”

피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하는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정우식군(12세)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정군은 지난 4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마지막 세포이식수술을 앞두고 있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불교방송은 결국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모은뒤 지난 19일 전체 직원회의를 소집해 3개매체간 인적교류확대 등 4개항의 구체적인 합의 부분은 ‘협력할 수 없다’고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전문인력의 활용, 예산절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직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곳은 의외로 해당매체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실현불가능한 얘기’로 평가하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특히 불교방송 보도국은 협력에 관한 합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통합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강하게 반대여사를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불교TV 여론도 법률적으로나 사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도에서 협력관계지 운영상 협력이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리공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점심식사하며 얘기하는 정우식군 제에어 아무생각없이 참석한 것 뿐”이라고 밝혀 3사협력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충분한 합의없이 발표됐음을 노골, 자칫 해프닝으로 비쳐질 가능성마저 높아졌다.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전문인력의 활용, 예산절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직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곳은 의외로 해당매체 임직원들이다. 이들은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실현불가능한 얘기’로 평가하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특히 불교방송 보도국은 협력에 관한 합의지만 실무적인 부분은 통합에 준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강하게 반대여사를

3개매체 협력안 ‘슬렁’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불교TV 여론도 법률적으로나 사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도에서 협력관계지 운영상 협력이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공리공론에 불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점심식사하며 얘기하는 정우식군 제에어 아무생각없이 참석한 것 뿐”이라고 밝혀 3사협력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충분한 합의없이 발표됐음을 노골, 자칫 해프닝으로 비쳐질 가능성마저 높아졌다.